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1. Vol. 11. No. 3, pp. 155~173

초등 및 유치원 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박 미 영 (건국대학교)
ppiyac_1999@hanmail.net
이 지 현 (건국대학교)
jhlk@konkuk.ac.kr

요 약

본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115명의 유치원 교사와 116명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배포하여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집단과 초등학교 교사집단 모두 영재아에 대하여 보통수준 이상의 인식을 나타내었으나, 영재성과 형제 순위와의 관련성, 창의성의 영역 한정성, 영재아의 신체 성장 발육, 영재아의 유머 감각, 영재아 가정의 경제적 배경, 영재아의 친구관계 등에 대하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영재교육에 대하여서도 역시 대체로 보통 수준의 인식과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관심정도가 유치원 교사들보다 높았다.

I. 서론

세계 각 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우수한 영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재교육 교수자료와 판별도구, 교사진, 영재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영재교육에 관한 한 불모지와 다름없었으나,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등학교의 평준화 시책에 따른 교육의 수월성 저하와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1980년대 들어 확산되었고,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재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983년에 경기 과학 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과학 영재교육이 제도권 교육 내에서 시작되었고, 1999년 12월 28일, 영재교육 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제도권 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재들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영재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따로 교육을 하게 되면 다수의 남은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재들 또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적인 환경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영재성이 사장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 또한, 영재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 그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영재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에 맞는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타고 난 영재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초등 및 유치원 교사들이 영재아와 영재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봄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인식 폭을 넓히고 나아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영재교육에 대하여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영재아에 대한 환상과 부러움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영재아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에는 일치된 견해를 찾기 매우 어려우며, 특정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재아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달라진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재아를 정의한다면, 영재아란 특수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 또는 특정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진흥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영재아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영재아의 특성에 대한 견해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Terman(1925)은 그의 저서 「천재의 유전학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영재아들은 평재아보다 학업 성취면에서 훨씬 앞서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편이며, 또래들 속에서도 인기가 많고, 또한 리더역할을 담당하고 평균아동들에 비해서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없는 편이라고 주장한다. 영재아는 평재들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편이며 체격조건도 약간 우월하다(강경희, 1996, 재인용). Renzulli와 Hartman(1971)은 영재아를 판별하는 "영재의 행동특성 평정척도(Scale for rati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를 개발하였다. 이 평정척도는 영재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물을 기초로 한 것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영재아를 바라보고 있다(송용대, 1990, 재인용). 영재아의 영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 학자들의 연구결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영재성은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ouchard & MaGue, 1981; Scarr & Weinberg, 1983). 또한 영재는 대부분 첫째이거나 외동이라는 것이 Terman(1926)과 Hollingworth(1942)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고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Albert(1975)는 '특별한 가족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화하였다.

최근 영국 심리학자 조안 프리먼 교수는 2001년 9월 10일, 워세스터에서 열린 영국 심리학회에서 '재능 있는 아이'로 지목 된 일부 어린이들은 내성적으로 자라나며, 재능은 있지만 이같은 지목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영재성과 유명세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영재아는 조기에 판별되어 영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조기교육이라는 것은 적기교육의 의미이다(서유현, 1999). Bloom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지능

은 약 17세 정도에서 완전히 성숙되어 정체된다(전경원, 1997,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기 영재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최근에 특정 과목에서 특정 변인에 따라 달리 반응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영재 판별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식보다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한 단계의 평가보다는 다 단계 선별을, 지필 검사보다는 산출물과 수행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평가하며,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성까지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영재 판별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한국 교육개발원이 명시한 우리나라의 영재 학생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영재아는 우선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이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영재 교육 기관에서 판별을 받게 된다. 영재 판별 위원회는 지능검사, 사고력 검사, 문제 해결 능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치게 되고 이 심의 후 영재교육 기관장이 최종 선정해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영재아와 영재 교육은 실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재아에 대한 많은 신화들은 사실상 우리가 영재아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방해하고 있다. 영재 교육 또한 영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영재아가 가지고 태어난 영재성을 계발하여 주는 것임을 올바로 인식할 때 이제 첫 걸음을 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도 올바로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편의 표집에 의하여 선정된 유치원 교사 115명과 초등학교 교사 116명, 모두 231명이 참여하였다. 유치원 교사에게 125부, 초등학교 교사에게 1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각 118부와 11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23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영재아 및 영재 교육에 대하여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영재아의 특성과 영재 교육에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영재아에 관련된 내용, 즉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영재의 특성을 알아보는 16문항과 영재 교육에 관련된 내용, 즉 영재교육의 대상선정, 영재 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를 알아보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재교육 전문가에게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보통이다 : 3점, 그렇다 : 4점, 매우 그렇다 : 5점)로 평가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이해 및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 하위영역 및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검사도구 하위영역 및 신뢰도 계수

	영역	문항수	Cronbach α
영재아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5219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5	.6244
	영재의 특성	6	.5208
영재교육	영재 교육의 대상 선정	5	.5586
	영재 교육에 관한 일반적 견해	4	.6921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	5	.7725

3. 연구 절차 및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01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묻는 질문지를 제작,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한 후 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질문지 회수에 걸린 기간은 약 2주 정도였다. 회수된 질문지 235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4개의 질문지를 제외한 총 231부를 대상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질문지의 응답 결과는 SPSSWIN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으며,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도 수준은 $p < .05$ 에서 선정되었다.

IV. 결과의 해석

1.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은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영재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영역	항목	M	SD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전성	3.44	.75
	형제순위	2.84	.79
	성차	3.22	.75
	유명세	3.08	.79
	경제적 배경	3.08	.94
	계	3.13	.30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지능	3.97	.63
	창의성	3.90	.89
	영역 보편성	2.92	.88
	모범	3.75	.53
	친구관계	3.05	.77
	계	3.52	.31
영재의 특성	예민함	3.63	.72
	신체 성장 속도	2.43	.70
	부적응아	3.73	.67
	신체표현	3.27	.86
	자기주장	3.70	.75
	유머감각	2.65	.68
	계	3.23	.36
전체	3.29	.18	

먼저, 영재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3.29로 나타나,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이상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3.13,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3.52,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3.23을 나타냈다.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영재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태어난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높은 인식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영재가 유전적인 영향으로 태어난다는 의견에 보통 이상의 찬성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재의 출생은 형제순위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84로 가장 낮았는데, 영재성과 출생순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중 영재성은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3.9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성과 지능과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성과의 관련성도 3.90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영재의 특성 중 영재는 고집과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의견이 3.70으로 가장 높아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재아는 일반아동에 비해 신체 성장발육이 빠른 편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43으로 가장 낮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성과 신체 발육과는 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재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영역	항목	M	SD
영재교육 대상판별	조기판별	3.77	.83
	학습능력	3.30	.95
	판별도구	3.74	1.08
	교육의 형평성	3.84	.68
	빠른 어휘력	3.17	.79
	계	3.57	.39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	교육의 과열화	3.64	.85
	학습의욕	3.52	.84
	영재교육 프로그램	3.58	.75
	교육방법	3.65	.65
	계	3.60	.42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	지도 부문	2.92	.85
	교육프로그램 부문	2.90	.74
	영재 특성 부문	3.15	.72
	연수 부문	3.06	.82
	지원 분야 부문	2.86	.86
	계	2.98	.56
전체		3.38	.30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3.38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중 영재교육의 대상 선정에 대한 인식은 3.57,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3.60,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는 2.98로 나타났다. 영재 교육의 대상 선정 중 영재를 따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영재를 따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영재는 조기에 판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3.77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를 조기에 따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 중 영재를 지도할 때는 속진과 심화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재가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면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3.52로 그렇다는 의견에 가까운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를 따로 선발하여 속진과 심화를 혼용해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는 세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영재의 특성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보통 이상의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재에 대한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는 2.90, 많은 분야의 영재들 중에서 수, 과학 영재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으로 다소 낮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관해 갖는 전반적인 인식에 비해 개인적인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영재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영역	항목	M	SD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전	3.88	.77
	형제순위	2.71	.73
	성차	3.16	.87
	유명세	3.34	.93
	경제적 배경	2.75	1.03
	계	3.17	.39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지능	4.11	.66
	창의성	4.29	.79
	영역 보편성	2.63	1.11
	모범	3.79	.73
	친구관계	2.83	.94
	계	3.53	.32
영재의 특성	예민함	3.77	.82
	신체 성장 속도	2.41	.74
	부적응아	3.76	.69
	신체표현	3.38	.97
	자기주장	3.76	.84
	유머감각	2.76	.85
	계	3.31	.48
전체		3.34	.25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영재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평균 3.34로 대체로 보통 이상의 인식을 나타냈고, 그 중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3.17,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3.53,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3.31으로 나타났다.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영재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태어난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영재의 출생은 형제순위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71로 가장 낮았다. 또한 영재는 경제수준이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의견에 대해 2.75의 반응을(역산문항) 보임으로써 영재성과 가정의 경제적 배경간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중 영재성은 창의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4.29, 영재성은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4.11의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성과 창의성, 지능과의 관련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특성 중 영재는 예민하다는 의견이 3.77, 고집과 자기 주

장이 강하다는 의견이 3.76으로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를 예민하고 고집과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재는 유머감이 뛰어나다라는 문항에는 2.76의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유머감각은 그리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재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영역	항목	M	SD
영재교육 대상판별	조기판별	4.01	.79
	학습능력	3.15	1.09
	판별도구	3.74	1.04
	교육의 형평성	3.98	.91
	빠른 어휘력	3.29	.92
	계	3.63	.41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	교육의 과열화	3.96	.96
	학습의욕	3.86	.81
	영재교육 프로그램	3.58	1.00
	교육방법	3.96	.66
	계	3.84	.49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	지도 부문	3.09	1.02
	교육프로그램 부문	3.22	.89
	영재 특성 부문	3.43	.84
	연수 부문	3.09	.99
	지원 분야 부문	3.22	1.06
	계	3.21	.70
전체		3.56	.38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재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평균 3.56으로 보통 이상의 인식을 보였는데, 그 중 영재교육의 대상 선정에 대한 인식은 3.63,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3.84,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는 3.21로 나타났다. 영재 교육의 대상 선정 중 영재는 조기에 판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영재 교육의 형평성을 묻는 문항에 3.98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초등학교 교사들은 영재를 조기에 판별하여 따로 교육하는 것에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를 선발할 때는 아동의 학습적인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3.15로 학습능력 이외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 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 중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과열 경쟁으로 영재를 교육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3.96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영재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영재를 지도할 때는 속진과 심화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3.96의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재를 지도할 때는 속진과 심화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 중 영재의 특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3.43, 영재에 관한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는 의견은 3.22로 보통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으나, 영재를 지도해 보고 싶다는 3.09, 영재 교사연수를 받고 싶다는 3.09로 관심도에 비해 참여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

영재아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 교사들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재아에 대한 유·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

영역	항목	집단	N	M	SD	t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전	유치원 교사	115	3.44	.75	-4.351***
		초등 교사	116	3.88	.77	
	형제순위	유치원 교사	115	2.84	.79	1.361
		초등 교사	116	2.71	.73	
	성차	유치원 교사	115	3.22	.75	.501
		초등 교사	116	3.16	.87	
	유명세	유치원 교사	115	3.08	.79	-2.349*
		초등 교사	116	3.34	.93	
	경제적 배경	유치원 교사	115	3.08	.94	2.533*
		초등 교사	116	2.75	1.03	
	계	유치원 교사	115	3.13	.30	-.798
		초등 교사	116	3.17	.39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지능	유치원 교사	115	3.97	.63	-1.729
		초등 교사	116	4.11	.66	
	창의성	유치원 교사	115	3.90	.89	-3.582***
		초등 교사	116	4.29	.79	
	영역 보편성	유치원 교사	115	2.92	.88	2.223*
		초등 교사	116	2.63	1.11	
	모범	유치원 교사	115	3.75	.53	-.541
		초등 교사	116	3.79	.73	
	친구관계	유치원 교사	115	3.05	.77	1.993*
		초등 교사	116	2.83	.94	
	계	유치원 교사	115	3.52	.31	-.349
		초등 교사	116	3.53	.32	
영재아 특성	예민함	유치원 교사	115	3.63	.72	-1.394
		초등 교사	116	3.77	.82	
	신체성장속도	유치원 교사	115	2.43	.70	.222
		초등 교사	116	2.41	.74	
	부적응아	유치원 교사	115	3.73	.67	-.315
		초등 교사	116	3.76	.69	
	신체표현	유치원 교사	115	3.27	.86	-.911
		초등 교사	116	3.38	.97	
	자기주장	유치원 교사	115	3.70	.75	-.600
		초등 교사	116	3.76	.84	
	유머감각	유치원 교사	115	2.65	.68	-1.052
		초등 교사	116	2.76	.85	
	계	유치원 교사	115	3.23	.36	-1.286
		초등 교사	116	3.31	.48	
전 체	유치원 교사	115	3.29	.18	-1.428	
	초등 교사	116	3.34	.25		

*p< .05, **p< .01, ***p< .001

전반적으로, 영재아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 교사 3.29, 초등학교 교사 3.34로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아에 대한 인식도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t = -1.43, p > .05$),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에 상관 없이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영재의 특성을

포함하여 영재아에 관해 보통 이상의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영재아에 대한 인식 중, 먼저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 = -.80, p > .05$). 그러나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유전($t = -.44, p < .001$), 유명세($t = -2.35, p < .05$), 경제적 배경($t = 2.53, p < .05$)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전 및 유명세에 대해서는 초등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초등 교사에 비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 있어서, 영재는 창의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유치원 교사는 3.90, 초등학교 교사는 4.29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 = -3.58, p < .001$),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성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들은 영재성을 드러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성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 2.92, 초등학교 교사 2.6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 = 2.22, p < .05$), 유치원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는 대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 3.05, 초등학교 교사 2.83으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 = 1.99, p < .05$), 유치원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들보다 영재아들의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특성 전 항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반적으로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평균 3.39,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평균 3.5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 = -3.97, p < .001$), 대체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t = -3.96, p < .001$)와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t = -3.97, p < .001$)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집단이 유치원 교사 집단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과 관심도를 나타냈다.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영재교육의 대상판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영재는 조기에 판별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t = -2.29, p < .05$), 초등학교 교사가 조기에 판별해야 함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영재를 선발할 때는 아동의 학습적인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나, 모든 영재는 동일한 테스트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측정, 판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 영재를 따로 선발,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의견, 영재는 빠른 어휘력의 발달 때문에 그 영재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과열경쟁으로 영재를 교육하기 힘들다는 의견($t = -2.61, p < .01$), 영재가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 받을 때 학습의욕을 잃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t = -3.13, p < .01$), 영재를 지도할 때 속진과 심화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t = -3.53, p < .001$)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의 인식 수준이 유치원 교사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에 있어서, 영재에 대한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는 의견($t = -2.89, p < .01$), 영재의 특성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견($t = -2.77, p < .01$), 많은 분야의 영재들 중에서 수, 과학 영재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t = -2.87, p < .01$)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집단이 유치원 교사 집단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표 7> 영재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

영역	항목	집단	N	M	SD	t
영재교육 대상판별	조기판별	유치원 교사	115	3.77	.83	-2.288*
		초등 교사	116	4.01	.79	
	학습능력	유치원 교사	115	3.30	.95	1.174
		초등 교사	116	3.15	1.09	
	판별도구	유치원 교사	115	3.74	1.08	-.016
		초등 교사	116	3.74	1.04	
	교육의 형평성	유치원 교사	115	3.84	.68	-1.312
		초등 교사	116	3.98	.91	
	빠른 어휘력	유치원 교사	115	3.17	.79	-1.056
		초등 교사	116	3.29	.92	
계	유치원 교사	115	3.57	.39	-1.314	
	초등 교사	116	3.63	.41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견해	교육의 과열화	유치원 교사	115	3.64	.85	-2.621**
		초등 교사	116	3.96	.96	
	학습의욕	유치원 교사	115	3.52	.84	-3.128**
		초등 교사	116	3.86	.81	
	영재교육 프로그램	유치원 교사	115	3.58	.75	.043
		초등 교사	116	3.58	1.00	
	교육방법	유치원 교사	115	3.65	.65	-3.525***
		초등 교사	116	3.96	.66	
	계	유치원 교사	115	3.60	.42	-3.961***
		초등 교사	116	3.84	.49	
교사의 개인적 관심도	지도부문	유치원 교사	115	2.92	.85	-1.334
		초등 교사	116	3.09	1.02	
	교육프로그램 부문	유치원 교사	115	2.90	.74	-2.890**
		초등 교사	116	3.22	.89	
	영재 특성부문	유치원 교사	115	3.15	.72	-2.765**
		초등 교사	116	3.43	.84	
	연수부문	유치원 교사	115	3.06	.82	-.212
		초등 교사	116	3.09	.99	
	지원분야 부문	유치원 교사	115	2.86	.86	-2.872**
		초등 교사	116	3.22	1.06	
계	유치원 교사	115	2.98	.56	-2.740**	
	초등 교사	116	3.21	.70		
전 체	유치원 교사	115	3.39	.30	-3.968***	
	초등 교사	116	3.56	.38		

V. 결론 및 제언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아와 영재 교육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은 대체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먼저 영재아에 있어서, 영재성과 지능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영재아와 신체성장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영재 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들은 영재교육과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올바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수, 과학 영재의 지원 측면에 대해 낮은 지지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급부상하기 시작한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영재 교육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재의 실정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대하여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루 빨리 유치원 단계에서 영재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하여 유치원 교사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인식을 나타냈다. 영재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초등 교사들은 영재성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영재성과 신체 성장 속도의 관계를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영재아의 지도와 교육연수 측면에서 낮은 지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운영될 초등학교 영재 학급운영을 위한 영재 담당교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초등 교사들이 영재의 지도와 연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런 부분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영재아 및 영재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를 살펴 보면, 영재아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관심이 유치원 교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재교육이 곧 시행될 현 시점에서 살펴 본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영재아와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바르지 않을 때, 교육실행의 많은 혼선이 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영재교육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당국은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령기 영재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하여 영재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도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1996).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휘 (2001).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 서울: 교육과학사.
- 서유현 (2000). 천재아이를 원한다면 따뜻한 부모가 되라. 서울: 문학과 의식.
- 송용대 (1990).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 방안(200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원(1998). 특수한 영재교육. 서울: 서원.
- Albert, R. S. (1975). Family positions and the attainment of eminence: A study of special family positions and special family experiences. *Gifted Child Quarterly*.
- Abraharm, W.(1958). *Common Sense About Children*. N.Y :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Brandwein & Passow (Ed.)(1988). *Gifted Young in science*. Washington, D.C.: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 Bush, D.(1995). *Education of all education for none*. N.Y : Times Magazine, January. 9.
- Carroll, H.(1940). *Genius in the Making*. New York: McGraw · Hill.
- Davis, G.A. and Rimm, S.B.(1985).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he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 Drucker, P.F.(1968). *The age of discontinuity*. N.Y : Harper & brothers.
- Feldhusen, J. F. (1985). Summary. In J. Feldhusen (ED.), *Toward Excellence in Gifted Education*. Denver: Love Publishing. *Psychology Today, Novem*.
- Fetterman, D.M.(1987).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the Soviet Union*.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4(3).
- Gagne, F. (1991). Toward a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and talent.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etzels, J. W., & Jacson, P. W.(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New York : Wiley.

- Guilford, J. P.(1954).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IQ 180*. Yonkers, New York: World Book Company.
- Marland, S.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Report to the congres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latow, J. A.(1984). *A Handbook for Identifying the Gifted/Talented*. U.S.A.: Ventura Country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
- Renzulli, J. S.(1978). *The Enrichment Triad Model*.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 Reis, S. (1985).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comprehensive plan for educational excellence*. Connecticut: Creative Learning Press, Inc.
- Saunders & Espeland.(1991). *Bringing out the best*. Minneapolis: Free Spirit Publishing.
- Terman, L.(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Vol. 1), In L. A. Heller, G. J. Monks & A. H. Passow(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ergamon Press.

ABSTRACT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the Gifted Children and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Park mi young (kon-kuk university)

Lee, Jeehyun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the gifted children and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he talented. One hundred and fift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116 elementary 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subjects. Teachers perceptions on the gifted children were generally right, excep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iftedness and birth order, the domain-specificity of the creativity, and the physical growth, sense of humor,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gifted children. Teachers perceptions on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lso were generally right. Especiall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kindergarten teachers.